국회의원평가제 도입·비례대표 확대

새정치비전위, 첫 혁신안 발표

'선거제도 개혁 시민회의' 구성

새정치민주연합 창당준비위원회 산하 새정치비전위원회는 19일 국회의원 비례대표 의석 확대와 국회의원 평가제 도입을 제안했다. 새정치비전위 백승헌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첫 번째 정치혁신안을 발표하고 이를 수용할 것을 신당에 요구했다.

백 위원장은 회견에서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크게 높여 지역주의에 기반을 둔 지금의 독과점적 정당체제를 타파하고, 다양한 사회경제적 이해관계를 포괄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정당체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 직속 기구로 독립적인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시민회의'를 구성해 ▲비례대표 의석 비중의 증대폭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의 혼합 방식 ▲국회의원 정수 조정 문제 등을 논의할 것을 주장했다. 시민회의는 100여명의 시민을 성별·연령별·지역별 분포를 고려해 무작위로 선정하고, 1년간 선거제도 학습과 토론 등을 거쳐 최적의 안을 도출하면, 새정치민주연합이 그 안을 당의 공식 선거제도로 수용해 국회에 법안을 상정할 것을 요구했다.

새정치비전위의 이번 제안은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지난달 발표한 3차 정치혁신안 가운데 중장기 과제로 선정한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석패율 제도 도입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비전위는 또 국회의원 평가제 도입도 정치혁신안으로 제시했다.

백 위원장은 "국회의원의 역량과 자질은 선거에서 뿐만 아니라 상시적으로 평가되고 그 결과는 공천과정에 반영돼야 한다"며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상설적 의정활동 평가기구를 두고 그 결과를 다음 공직선거 공천에 반영, 최하위 그룹은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초기에는 국회의원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순차적으로 당 소속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정을 중심으로 한 정치활동을 촉진하고 책임정치와 정책정당의 면모를 강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새정치비전위가 이날 발표한 두 개의 정치혁신안은 현실 적용을 두고 많은 난관에 부딪힐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장하기 위해선 국회의원 의원 정수를 규정하고 있는 선거법 개정이란 관문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정강정책 초안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강운태 광주시장 23일 출마 선언

예비후보 등록 앞당겨…오형국 부시장 권한대행 맡을 듯

강운태 광주시장이 재선을 위해 예정보다 앞서 예비후보 등록을 하기로 해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장 후보 경선전이 조기 가열될 전망이다.

강 시장의 예비후보 등록은 6·4 지방선거에 나설 현역 광역단체장으로는 처음이며, 예비후보 등록을 함과 동시에 시장 직무가 정지된다.

강운태 시장 측은 19일 "새정치민주연합의 창당과 경선 일정이 4월말 이전에 끝날 것으로 보임에 따라 당초 일정을 앞당겨 출마 선언 및 예비후보 등록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시장측은 오는 25일 예비후보 등록을 하기로 잠정결정했지만, 다음날인 26일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 창당대회 일정이 있어 다소 유동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 시장이 '현직 프리미엄'을 포기하고 일찍 예비후보 등록을 결심한 배경에는 '관권선거' 논란을 피하고 현역 단체장으로서 선거법 제약이 많아 적극적인 선거운동에 나서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되고 있다.

강 시장 측 관계자는 "그동안 현직 시장으로서 시정에만 전념한다는 자세로 임했지만, 출마선언을 한 후보예정자의 계속되는 비방과 악성 유언비어 유포 등으로 정상적인 시정 수행이 어려웠다"며 "현직 시장으로서 적극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는데다 선거법상 '현직 역차별'에 대한 현실적 판단도 함께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강 시장이 예비후보 등록을 하게 되면, 직무가 정지돼 오형국 행정부시장이 선거일까지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예비후보 등록에 앞서 강 시장은 오는 23일 오후 2시 광주 상무지구 5·18기념공원 대동광장에서 출마 선언 및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6·4 지방선거 현장

광역단체장

이낙연 "전남지역 버스 준공영제 단계적 도입"

전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19일 "전남지역 전역에 버스 (준)공영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버스 공영제란 지자체가 버스를 직접 운영하는 완전공영제와 지자체가 운영계획을 담당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준공영제로 나뉜다"며 "두 가지 방법 모두를 검토하되, 각 지자체 실정에 맞는 제도를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전남은 벽지가 많아 교통복지가 절실하다"며 "버스(준)공영제를 농어촌지역부터 도입해 단계적으로 전남 전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주승용 "광주·전남중기청 전남사무소 설치"

전남지사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19일 광주··전남지방 중소기업청을 방문해 "광주·전남지방 중소기업청 '전남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현재 광주에 위치한 광주·전남 중소기업청 이용에 따른 시간·거리상의 제약으로 정부 시책의 접근성과 편의성에 대한 불만도 많은 상태다"면서 "목포와 순천에서 광주·전남 중기청 간 이동시간이 왕복 3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덧붙였다.

또 "국가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의 육성지원을 위해 빠른 시일내에 전남사무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초단체장·광역의원

임갑수, 화순군수 출마…"사람부터 바꾸자"

화순군수 출마예정자인 임갑수 국회 입법정책연구회 이사는 19일 "지난 2002년 이후 12년동안 민선 화순군수는 소위 형제·부부 군수라 회자되며 구속을 거듭했고, 현 군수 또한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 5명은 자신의 영달을 위해 화순의 명예와 자존심을 버린 '21세기 화순판 을사오적'이라 불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그는 "화순을 위해서는 사람부터 바꿔야 한다"면서 "새정치, 새인물이라는 기치로 웅비하는 화순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현주, 광양시장 출마 선언

통합진보당 유현주 전 전남도의원이 19일 광양시장 출마를 선언하고 "민주와 민생, 광양시민들의 행복을 지키는 당당한 시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유 전 도의원은 "공공부문부터 노동자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허울뿐이 무기 계약직이 아니라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보장되는 실질적인 정규직화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또 "체불임금을 발생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급공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강력히 조치해 체불임금 걱정 없는 광양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김영준, 광주시의원 선거 출마

김영준 광주·전남 문화국가포럼 공동대표는 19일 "광주 서구을 제4선거구(금호 1·2동, 상무2동, 서창동) 시의원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제2대 서구의회 의원을 끝으로 정치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지난 2012년 정권교체 실패와 새정치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고 판단해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의원 후보로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김 대표는 서구의회 의원, 민주당 광주시당 문화수도특별위원장, 광주시당 부위원장, 무등새마을금고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문태환, 광주시의원 출마…"생활정치 실현"

문태환 민주당 광산갑 지역위원회 동협의회장은 19일 "민생현장에서 의제를 찾고, 주민과 함께 정책을 수립하는 생활정치를 실현하겠다"고 광주시의원 선거(광산 제2선거구) 출마를 선언했다. 문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 대책수립 및 소음피해 보상해결 노력, 무진로 교통체증 해결방안, 주택가 주차장 확보 등 지역발전에 대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밖에 ▲도시철도 2호선 지선 건설의 조기착공 유도 ▲월곡동 청소년 문화센터 건축 원활한 추진, 등의 공약도 제시했다.

박병진, 도의원 출마…"일자리 3만개 창출"

박병진 전 전남도교육감 비서관은 19일 "4년 임기 중 호남고속도로 순천IC 인근 50만평 규모의 '친환경 IT산업단지'를 만들고 친환경기업을 유치해 일자리 3만개를 만들겠다"며 전남 순천 제4선거구(서면·왕조1동) 도의원 선거 출마의사를 밝혔다. 박 전 비서관은 "신도심 양극화 해소를 위해 복지를 강화하고 구도심 활성화와 순천의료원 정상화를 위해 차병원 남해안권역 불임센터를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순천대표 상품 육성 ▲순천만정원 경비행기 관광시대 ▲로컬푸드 직매장 유치 통한 주민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심철의, 21일 선거사무소 개소

심철의 광주시의원(서구 제4선거구) 예비후보는 오는 21일 금호동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표밭갈이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심 예비후보는 "상상과 꿈이 현실에서 성취되는 그날을 위한 결단의 첫 걸음을 조심스럽게 뗀다"며 "42년동안 서구 상무 2동에서 살아온 지역 토박이로, 지역민들에게 남다른 관심과 애정이 있는 만큼 지역민들의 믿음직한 대변인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최권일·오광록 기자 cki@kwangju.co.kr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kwangju.co.kr

높은 대출금리의 벽
앞으로의 금융, 신협이 바꿉니다.
대출한도 최대 25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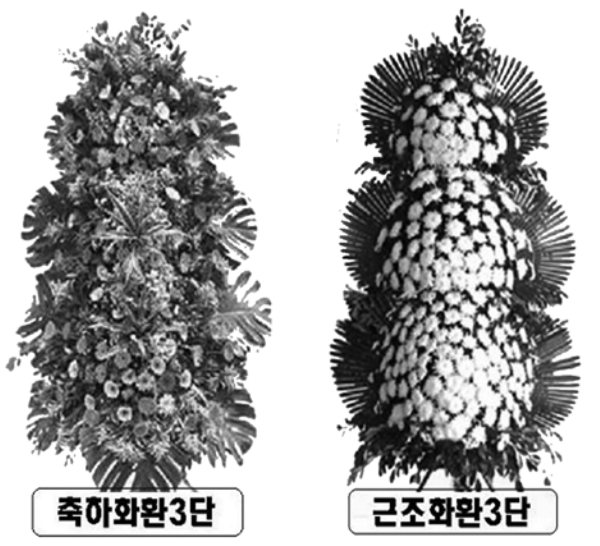
• 아파트 / 상가 / 원룸 / 나대지
보증금 / 차량 등 모든 담보가능!
• 특례보증 / 햇살론 대출지원!
• 신용대출 – 직장인 / 자영업자 우대!
광주원광신협
| 궁동본점 | 227-4474
| 금호지점 | 383-4474
| 풍암지점 | 653-4474

나주 혁신도시
상가분양 및 임대
이 상가 빌딩은
고객의 마음을 담은
기술이 숨어 있습니다.
위치/가격/디자인/편리성
넘버원 빌딩!
다성빌딩 지하 1층~지상 6층(임대)
한빛타워 지하 1층~지상 8층(분양)

나주 솔로몬 공인중개사
주식회사 드림피아개발
분양·임대문의 ☎ 061-333-7077
H. 010-3505-8005 / 010-5587-3080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우정사업본부 후문 방향)

부실채권(미회수금)
회수대행전문
대여금·거래대금·
개인차용금·공증·판결문
각종 미회수대금
- 선수금없음, 후불제(착수금)
(법 비용은 채권자 부담)
- 수수료(회수금액의 30%이내)
- 재산조사, 신용조사가능
- 국가공인 자격증 소지자 직접 추심
◎ 텔레마케터 수시모집
◎ 추심직, 계약상담직원
★ 소중한 재산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요 ★
세일신용정보(주)
062)385-0006,010-4608-6061
(담당:김정수)

NAVER 검색창에 단비플라워 를 쳐보세요
단비플라워



축하화환3단 근조화환3단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경조화환 7만원 시외 8만원
전화. 062)233-9961 Fax. 062)672-996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